올해 처음 열린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오롯이 무형 유산 가치 조명… 관객 확보 한계

지난 22~24일 제주목 관아 및 도내 일원서 열려
의미 있는 행사…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돼야

지난 22~24일 제주목 관아 및 도내 일원에서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이 열렸다. 이상국기자

제주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롯이 무형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꾸려 도민과 관광객에게 첫선을 보인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이 막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숨결, 손결, 연결'이란 주제로 제주목 관아 일원 및 도내 일원에서 펼쳐 보인 축제로, 어렵게 전통을 이어가는 전승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에게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긴 행사였다.

좋은 취지에 국내·외 유산 공연, 공예 전시·시연, 체험 등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됐지만 함께 가치를 공유할 시민들의 발걸음은 뜸했다.

특히 첫날 기념식 행사장을 채운 건 전승자 입장 퍼레이드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평일에 진행된 행사임을 감안하더라도 관객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주말엔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틈틈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광객은 "공연과 아이들 체험 부스가 있어 좋은 것 같다"면서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어 우연히 제주목 관아에 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걸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행사 취지는 좋았는데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간과한 것 같다"며 첫 행사가 끝난 만큼 추후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내년 행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 기념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중한 무형유산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며 "제주도정은 무형문화 전승에 헌신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는 해녀노래, 영감놀이, 방앗돌굴리는 노래 등 총 28개 무형문화재(국가지정 6개, 도지정 22개)가 지정돼 있다. 그리고 총 93명(국가지정 13명, 도지정 81명)의 전승자가 무형문화재 보존·계승에 노력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파란만장했던 이중섭 삶·예술혼 압축

23~24일 '2022 버전' 창작 오페라 '이중섭' 선봬
도내 출신 비중 늘며 '제주산 오페라' 의미 더해

'2022년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온 창작 오페라 '이중섭'(작곡 현석주, 대본 이영애·김숙영, 연출 장수동, 지휘 이동호·최상윤)이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지난 24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창작 오페라 '이중섭' 공연 모습.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 제공

인터미션(15분)을 포함 약 2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파란만장했던 이중섭의 삶과 예술혼이 압축돼 무대 위를 채웠다.

이중섭이 서귀포를 배경으로 그린 '섶섬이 보이는 풍경'에서 시작해 '서귀포의 환상'까지를 축으로 식민시절, 광복, 6·25전쟁, 피난시절, 미도파화랑 개인전, 1956년 서울적십자병원에서 41세로 세상을 등지기까지 이중섭의 일대기가 총 4막으로 요약돼 펼쳐졌다.

각 막마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살아움직이는 듯한 이중섭의 그림 등 다양한 연출을 시도한 영상디자인은 무대 세트에 풍부함을 더했다.

지난 24일 공연을 관람한 한 관객은 "이중섭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본 듯한 느낌이어서 화가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담담한 극의 흐름으로 몰입감은 다소 떨어졌다"고 전했다.

창작 오페라 '이중섭'은 지난 2016년 서귀포시와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 초연된 오페레타에서 출발한다. 2019년부터 오페라 버전으로 거듭나 서울에서 첫선을 보였고, 지난해 재연으로 제주 관객들과 처음 만났다.

올해로 3회째 공연하는 오페라 '이중섭'은 도내 창작 오페라의 제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대다수를 도내 출신으로 꾸리고 조역, 단역으로 출연하는 서귀포합창단 단원들의 비중도 높이며 '제주산 오페라'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61회 탐라문화제 사전음악제로 예열

10월 5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국제문화교류의 장

올해 제61회 탐라문화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사전행사로 국제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가 주관하는 '제61회 탐라문화제 국제문화교류 사전음악제'로, 10월 5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일환으로 추진되는 탐라문화제 국제문화교류는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무대는 제주출신 카운터테너 임준혁 씨가 서막을 올리고, 청년 국악팀 '제주국악밴드 이강'과 일본 후쿠오카의 '텐구 북&부젠시 신악(神樂)단'이 스크린을 통해 온·오프라인 콜라보를 펼친다.

공연 하이라이트는 서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과 지난 8월 독일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이 한·독 문화교류의 결실인 협연 무대가 장식한다.

이날 교류에 이어 탐라문화제 기간인 10월 7일 오후 6시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일본, 몽골, 중국 지역의 예술공연과 브라질 사진작가의 작품 전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국경을 넘는 문화교류는 10월 8일 탐라문화제 공식 퍼레이드에서도 펼쳐진다. 오은지기자

화려한 색의 향연에 담긴 기발함

문정호 다섯 번째 개인전
이달 30일까지 아라갤러리

문정호 작 '황색 매화'

곧 아흔을 바라보는 제주의 문정호 작가는 오늘도 예술혼을 뽐낸다.

지난 2015년 '생(生)을 얻는 나무'를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연 후 꾸준히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 그가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준비한 작품을 들고 다섯 번째 개인전 '생(生)을 얻는 나무-자연을 그리다'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가 제작한 작품은 100여 점. 이 중 전시장에선 회화 44점, 목조각 8점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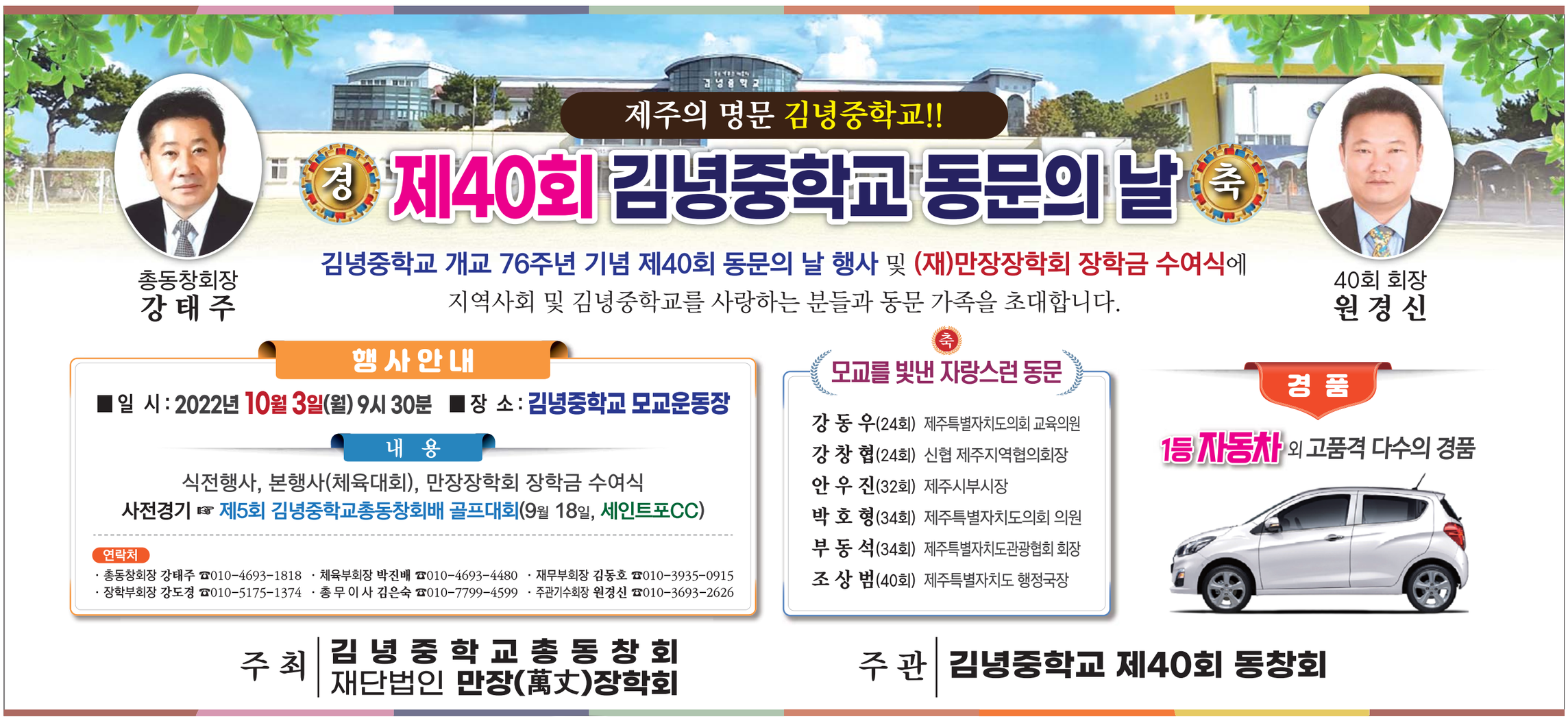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그의 작품에 대해 "풍경에 해당하는 일련의 그림이 기이하게 초현실적이면서도 모호한 매력을 풍긴다"며 "평면적인 그림이며 원근감이 없이 모든 대상이 균질하게 달라 붙은 화면에 여러 장면이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포개진 화면 구성이 특히 재미있다"고 평했다.

아라갤러리에서 진행중인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전통·현대서각 한자리

(사)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현승남)의 열여덟 번째 정기전이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현승남 지회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 기법을 살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고 친근감을 주는 작품, 입체감과 채색이 돋보이고 현대서각의 세련미와 조형감을 잘 살린 작품, 좋은 글과 그림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메시지가 있는 작품 등으로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작품으로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전시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